



21세기, IT 혁명은 꿈속에도 존재한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밤의 꿈을 부여잡고 해몽가를 찾거나 혹은 해몽책자를 뒤적거린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린 버전이나 초가집, 비단과 돈(염전) 등의 소재를 가지고 해몽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책자를 접하기가 심상이다.

인터넷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한 요즘, 꿈속에 인터넷과 컴퓨터, 대형안테나, 우주선 등이 등장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21세기, 유비쿼터스를 맞이하는 시대에 걸맞게 IT적인 해몽이야기를 들어보자.

“꿈에서 인터넷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해몽책을 보면 ‘돌아가신 조상이 나타나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앞날을 예고해 준다고 본다. 그러므로 타인의 조언 없이 스스로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면 대성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찾을 수 있다.

재해석 이전 시대에는 인터넷이란 것이 없었다. 오직 조상을 ‘길

거리에서 만났느냐’, ‘집 안에서 만났느냐’ 하는 식의 차이가 있었을 따름이다. 이같은 꿈은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 중 의사소통을 나누는 통신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위의 꿈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 하면, 어떠한 통신수단(전화, 모바일,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놀라운 소식, 혹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에는 IT를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대형 안테나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우주를 돌아다니는 꿈을 꿴어요!”

이는 더욱 가관이다. ‘컴퓨터’와 더불어 ‘안테나’라니. 이를 풀어보고자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우주는 광활한 미지의 어떤 곳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보다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게 될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재해석 꿈은 ‘무의식’이라 불리며 해외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연구해온 분야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학자 라루스에 의하면 ‘좋은 기억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언젠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산하게 된다고 한다.

즉 위의 꿈은 컴퓨터, 인터넷에 중독 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꿈이라고 해석된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서 엄청난 게임머니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전 같은 경우, ‘돈과 오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당연히 횡재수라고 할 수밖에. ‘어떤기관을 통해 돈을 모으는 꿈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도움으로 횡재를 하게 되는 예지몽이다’라는 해석을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온라인상의 무수한 해몽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재해석 이전 시대의 게임이란 화투나 바둑, 자치기 등을 비롯한 마당놀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다양한 장르와 내용이 갖춰진 현대의 온라인 게임은, 실생활과 같은 3D영상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오락’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즉 온라인 게임은 곧 실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주관과 능력을 한껏 발휘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장한 남자가 저의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의 본체까지 커다란 망치로 부셔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대성하여주위에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니, 휘방꾼이 생긴다’는 것이 이전꿈에 대한 해석이었다.

재해석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부순다’는 것에 해석의 요지가 담겨있다.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 등의 중요성은 배제한 해몽이라 할 수 있다.

IT 문화가 삶의 일부로서 자리한 지금에 와서 컴퓨터는 단순히 자신의 것 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보물이나 ‘값비싼 무엇’이라고도 해석될 수 없다. 즉 이같은 꿈은 일이나 물질 등의



‘규정된 것’이 아닌, 누군가의 강압이나, 질한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큰 사고나 위험에 대한 경고로 사소한 것까지 위험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는 변했다. 이전 것만을 고수하기에는 21세기, IT혁명의 바람이 거세졌다.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꿈속에서조차 우리는 인터넷을 삶의 한 부분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혹은 꿈이 너무 선명해서 해몽을 해보려 한다면 IT시대에 걸맞는 꿈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끝으로, 21세기 꿈에 대한 재해석을 다루며 많은 전문가와 서적을 접해보았다. 그들은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낙천적이며 좋은 생각, 희망찬 목표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꿈조차도 밝고 활기차다!’ 라고.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고, 자신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 참되게 사용한다면 2005년의 꿈자리는 언제나 밝고 희망으로 가득 하리라 확신한다. n